**교제와 나눔**

**ㆍ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어린이, 부모 및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ㆍ교회창립37주년 기념주일 및 어버이 주일:** 다음주일

**ㆍ당분간 온라인 가정예배는 계속되겠습니다.**

**ㆍ말씀편지도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

**ㆍ헌금:**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

**ㆍ생일축하:** 강일구, 이정윤, 손하준, 정기승, 전하라

**ㆍ소식:** 이재용 목사-황정은 사모 차남 출산(4/30, 도현)

**\*\* 함께 기도합시다 \*\***

1)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2)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3)언제 어디서든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당 예배로 잘 전환되게 하소서.

4)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6)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시3:1-8 월/시4:1-8 화/시5:1-12 수/시6:1-10

목/시7:1-17 금/시8:1-9 토/시9:1-20 일/시10:1-1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74독, 석혜진 교우 1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5월 3일** | **5월 10일** | **5월 17일** | **5월 24일** |
| **예배기도** | 구소피/석호선 | 김한진 | 민명희 | 박성희 |
| **말씀일기** | 민지음 | 송인선 | 석호선 | 김영희 |
| **안내위원** |  | | | |
| **헌금위원** | 가족 중 | | | |
| **애찬봉사** |  |  |  |  |

**37-18호 2020년 5월 3일**



**“너는 내 것이라”** (사43:1)

주일예배: 12:00 각 가정

유초등부예배: 12:00 각 가정

청소년부예배: 12:00 각 가정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잠시 휴강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63-139 2225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어 린 이 주 일 가 정 예 배**

오

인도: 이영환 전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부름/Eingangsgebet 시편127:1-2 | | 찬송/Gemeindelied 35장 큰 영화로신 주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96번(박재희 어린이와 서희정 교우) | | 찬송/Gemeindelied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 | 기도/Gebet 구소피 어린이, 석호선 집사  말씀일기/Bibeltagebuch 민지음 어린이  찬양/Chor ‘광야를 지나며’ 서민규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시편 16편 8-11절**(손하음 어린이) | | 설교/Predigt **어린이, 우리의 미래** 이영환 전도사 | | 기도/Gebet 설교자  찬송/Gemeindelied 596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봉헌/Kollekte 피아노 연주: 배서연 어린이 | | 교제/bekantmachung  주기도송/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축복/Segen 손교훈 목사  **\*\*교회 구좌**  Baek, Han-Jin Kim  Bank: Deutsche Bank PGK Düsseldorf  IBAN: DE29 3007 0024 0598 1931 00  BIC: DEUTDEDBDUE | |  |  |

**<설교>**

**어린이, 우리의 미래**(시편16편 8-11절)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 혹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린이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어린이날이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이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각기 다른 날짜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있습니다. 다른 언어권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어 “어린이”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듯이 어린 사람도 어린**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격식 있게 부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한국 속담 중에 “어린 아이 우물가에 둔 것 같다”는 말처럼, 어린 사람은 대개 미성숙하고 아직 위태로워 보이는 상태로 여겨집니다. “어리다”는 말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며, 반드시 부모나 타인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종종 어른들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기에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마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고 사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도 어린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정폭력 사건들이 그렇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나 주변인의 폭력으로 사망한 아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이 참 슬프고 괴로워집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세계의 어느 나라들 가운데에는 어린이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린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예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시길 바란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로 여겨졌고, 심지어 천대받기도 했으며 종종 여러가지면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주변은 항상 도움이 급한 사람들로 붐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내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도리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당혹감, 놀라움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약함 때문에 어린이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 성경에는 어린 아이들 혹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그리고 그 사회와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이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독문에서 읽은 **시편 127편**은 바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127편 3절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새번역)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정이나 사회에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정과 사회의 잠재성이고,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사회는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 어린이들이 사랑과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고, 그 사회의 좋은 미래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 사회나 공동체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 과정에는 부모님의 수많은 눈물과 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삶의 과정이나, 어떠한 결실을 맺는 때는 부모님이나 교사나 주변 사람들의 바램이나 계획에 꼭 들어맞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이들을 우리가 인격체로서 대하고, 함부로 노엽게 하지 않고, 삶의 바른 길을 온전히 교육하길 원하십니다(에베소서6:4)**. 다시 말해, 우리는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정성을 다해 교육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첫번째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19장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무 흠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인간상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린이들에게 과한 잣대를 들이 댄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고정된 틀에 넣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배우게 하고, 그로 인해 넘어질 때 일어서는 법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법을 익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6편의 기도자는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하며 시편 16편의 후반부만 읽었지만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를 가리켜 „**순금의 시**“라고 불렀다고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신앙이 참으로 단단해 보이고 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시편으로 설교를 할 때면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곤 합니다. 그것은 시편을 고요한 시간에 홀로 잠잠히 낭송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의껏 낭송을 해보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 이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에서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새번역). 또 기도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결코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7-8절**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분이고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비틀거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양심이 기도자 자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시편의 후반부인 **9-11절**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자에게는 곧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6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의 순금같은 신뢰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자처럼 **8절**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모두 각자 신앙 생활 중에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았다고, 넘어진 적이 없다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자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일으켜 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각자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나는 새들과 들에 핀 꽃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8절의 고백을, 1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새번역)

저는 어린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이 시편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게 될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어린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들이 비평만을 들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다른 이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조소를 받으며 성장하면 깊은 열등감에 빠질 것이고,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면 인내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사랑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이를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아이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개성과 달란트대로 좋은 결실을 맺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 온 세상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깨어진 가정에서, 여러 모양의 폭력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절망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님과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가정들,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